

# 상담자 행동 양식이 상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연수 이현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부분은 상담 협력관계의 형성이나 개선과 관련하여 상담자들이 궁극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보편적인 행동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담에서 상담 협력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볼 때 상담자의 행동이 일정한 양식을 보이는지 파악한 후에,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사례와 계속 저조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상담자 행동 양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A 대학에서 내담자를 표집하여 상담자와 4회기 동안 만나서 한 회기당 약 50분간 면담하게 하였다. 상담 협력관계는 상담 협력관계 검사(내담자용)로 측정되었고, 상담자의 행동 양식은 두 명의 평정자가 1회기와 3회기의 면담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에 따라 평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상담자 행동 양식을 얻기 위해 중다차원 축척법을 실시하여 도출된 차원들은 몰두-소원, 재구조화-탐색, 지지-도전, 책임성-서술성이었다. 둘째, 네 가지 차원의 상담자 행동 양식 중 지지-도전 차원은 상담 협력관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또한 재구조화-탐색 차원은 내담자 난이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몰두-소원, 재구조화-탐색, 지지-도전, 책임성-서술성의 상담자 행동 양식 네 차원 중 지지-도전 차원이 상담 협력관계의 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심리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서 발전되는 상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을 효과

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상담 관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담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 기법을 이행하는 데 주요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 관계가 상담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는 입장을 취하던 혹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던 간에, 상담 관계가 상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론가와 임상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Gelso & Carter, 1985; Gelso, Hill, & Kivlighan, 1991; Highlen & Hill, 1984; Parloff, Waskow & Wolfe, 1986).

상담 관계에 대해 Freud(1949) 이후 이론적으로는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상담 관계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Gelso와 Carter(1985)는 상담 관계를 "상담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느낌과 태도, 그리고 그 느낌과 태도가 표현되는 방식"(p. 159)이라고 정의하고, Greenson(1967)의 정신분석적 접근에 따라 상담 협력관계(working alliance), 전이, 실제 관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상담 관계를 구분하였다. 상담 관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특히 상담 협력관계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Horvath & Symonds, 1991; Mallinckrodt, 1991).

여러 이론가와 연구자들이 상담 협력관계를 정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Bordin (1979)의 개념이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Horvath & Greenberg, 1989; Horvath & Symonds, 1991; Kivlighan, 1990; Kokotovic & Tracey, 1990; Mallinckrodt & Nelson, 1991; Reandean & Wampold, 1991). Bordin(1979)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이 협조하는 것"(p. 256)을 상담 협력관계라고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 즉 목표, 과업, 유대가 협력관계의 질과 강도를 결정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담 협력관계는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혹은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건강한 자아와 상담자의 치료하는 자아는 상담 작업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Gelso & Carter, 1985).

상담 협력관계는 주로 상담 관계의 주체가 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상담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요인은 크게 상담자 개인특성, 즉 관대성, 개방성, 우호성과,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으로 대별된다(Moras & Strupp, 1982). 이 중 상담자 개인특성은 상담자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일생 동안 계속 수양되어야 하는 측면인 반면,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은 상담자 교육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측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담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전형적으로 상담자 교육 과정에는 구체적인 상담 기법과 상담 이론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상담 기법은 훈련 중인 초보 상담자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정보이지만, 그들은 곧 이러한 기법이 상담의 효율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론이란 것은 유용한 개념 구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그다지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야 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쓸 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상담 시간에 상대방과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 만남이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상담 기법은 상담의 과정을 촉진시키고, 상담 과정에 대한 이론은 그 과정을 구조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치유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내담자와의 상담 협력관계가 저조할 때에 상담자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론적 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Langs(1974)는 상담 협력관계가 저조하다면 상담자가 우선 자신의 역전이를 살펴봐야 하고, 적절한 해석을 해야 하며, 내담자에게 충고하고 지시하려는 시도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reenson(1967)은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하기보다는 상담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실제로 상담 협력관계가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담자가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Basch(1980)는 내담자의 도전과 비난에 직면하여 사례 깊고 분별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상담자의 능력이 내담자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느끼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조한 상담 협력관계를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해석 기법에는 잠재된 느낌이나 충동에 대한 불안을 막으려는 내담자의 방어를 확인하는 것, 내담자의 방어를 해석하는 것(Fenichel, 1941; Malan, 1981) 등이 포함된다. Saul(1972, 1977)과 Malan(1981)은 내담자의 갈등을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상담자(현재), 부모(과거)와 연관지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상담 협력관계와 관련된 상담자 개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Horowitz, Marmar, Weiss, DeWitt 및 Rosenbaum(1984)은 상담 협력관계와 관련하여 볼 때 상담자의 개입과 내담자의 특성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Kivlighan (1990)은 탐색, 평가, 지지 등의 상담자 언어 양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상담 협력관계의 강도와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나마 저조한 상담 협력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담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도록 추천한 Bordin(1979), Windholz와 Silberschatz(1988)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진행

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Foreman와 Marmar(1985)가 상담 초기에 협력관계가 저조하다가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사례와 계속 저조한 사례에서의 상담자 행동을 대비시켜 검토하여, 협력관계가 개선되는 사례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방어를 다루고, 내담자의 죄책감을 다루며, 상담자와 관련된 내담자의 부정적인 느낌을 다루고,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과 내담자의 방어를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고, 상담자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한 상담자가 곧 연구의 평정자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결함이 많았다.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과 상담 협력관계 개선 간의 이론화된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 중 하나는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Jones, Cumming와 Horowitz(1988)에 따르면,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이란 “해석, 느낌 말하기, 현실에 대한 왜곡의 교정 등과 같은 상담자의 의도적 행위”(p. 48)이다. 즉 특정한 이론적 입장에 의해 규정된 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을 반응 양식(Elliott, Stiles, Firedlander, Mahrer, & Margison, 1987) 혹은 상담자의 의도(Hill & O’Grady, 1985)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때 반응 양식이란 상담자가 개입하는 방식(예, 폐쇄적 질문)을 나타내며, 의도란 상담자가 하는 행동의 이유(예, 정보 수집)를 의미한다. 그러나 Hill, Helms, Tichenor, Spiegel, O’Grady 및 Perry(1988)는 상담 과정 연구에서 상담자의 구체적 활동을 적절하게 기술하기 위해 반응 양식이나 의도의 빈도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변화 과정의 결정적인 요소를 측정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Jones(1985)는 상담자 태도와 행동의 일반적 측면과 구체적 측면에서 상담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평정 절차로 사용하기 위해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Psychotherapy process Q-sort)을 개발하였다.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은 훈련된 임상적 조사와 유사하고 구조화된 관찰과 추론의 방법을 제공하므로 상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과 관련된 이론적 전제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Tobin(1990)은 중다차원 축척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하여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에서 변이의 96%를 설명해 주는 다섯 가지 차원의 상담자 전문적 활동, 즉 지지-도전, 소원-물두, 허용-통제, 주제 지향-구체성 지향, 여기 지금-거기 그때 차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 관계의 한 부분인 상담 협력관계의 형성이나 개선과 관련하여 상담자들이 궁극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보편적인 행동 양식을 발견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만약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면 훈련 중인 초보 상담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좀더 쉽게 분류하고 인식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 협력관계의 형성과 관련하여 불 때 상담자의 행동에 일정한 양식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사례와 계속 저조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상담자 행동 양식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상담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는 상담자 개입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것이다.

## 방 법

### 1. 대 상

#### 1) 상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상담 심리를 전공한 석사 학위 소지자 6명(남 1명, 여 5명)이다. 이들은 정신역동적 접근의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50회 이상의 사례회의 참여 경험과 10회 이상의 개인상담 실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은 25세에서 28세까지였다.

#### 2) 내담자

본 연구의 내담자는 A 대학에서 성격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 중에서 표집되었다. 이들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le Personality Inventory: MMPI) 결과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명의 학생들(남 3명, 여 13명)로, 연령은 19세에서 25세까지였다(최빈치=21세).

### 2. 측정도구

#### 1)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 (Psychotherapy Process Q-sort)

상담자의 행동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Jones, 1985)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은 상담 과정에 대한 표준 언어와 평정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로, 상담의 한 회기를 측정 단위로 하고 있다. 이 도구는 관찰되는 상담 회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문항에서부터 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까지 순서대로 100개의 문항을 아홉 단계로 배열하도록 되어 있다. Jones, Cumming과 Horowitz(1988)에 의하면,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은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관한 개별적인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 면접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담 협력관계와 관련된 상담자 행동 양식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의 100개 문항을 모두 평정하였지만 자료 분석에는 상담자와 관련된 38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 2) 상담 협력관계 검사-내담자용 (Working Alliance Inventory-Client Form)

‘상담 협력관계 검사’는 Bordin(1979)의 이론에 근거하여 Horvath와 Greenberg(1989)가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36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로 상담 협력관계의 세 가지 차원, 즉 유대, 목표, 과업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은 7점 Likert 척도 12문항으로 이루어진다. Horvath와 Greenberg(1989)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 협력관계 검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이며, 번안된 검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7이었다. 상담 협력관계 검사는 상담자 양식, 내담자 양식, 관찰자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담자가 평정한 것이 상담 결과를 가장 잘 예언한다는 Horvath와 Symonds(1991)의 연구에 따라 최근에는 내담자 양식의 상담 협력관계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Horvath와 Greenberg(1989), Tracey와 Kokotovic(1989)은 상담 협력관계 검사의 세 가지 차원이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 협력관계 검사(내담자용)의 총 점수를 협력관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 3. 자료수집절차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내담자들에게 연구자가 집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때 내담자들에게 상담 진행 상황과 상담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비디오로 녹화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게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이들에게 연구 목적을 위한 4회기의 상담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그런 후에 내담자들을 각 상담자에게 무선적으로 배정하고 상담 시간을 정하였다.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내담자 16명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각 내담자는 상담자와 4회기 동안 만나서 한 회기 당 50분 간의 면담 동안 개인적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 상담 회기를 비디오로 녹화하고, 1회기와 3회기 직후에 내담자에게 상담 협력관계 검사(내담자용)를 완성하게 하였다. 3회기의 상담 협력관계 강도가 상담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연구 보고(Barrett-Lennard, 1985; Gelso & Cater, 1985; Gelso et al., 1991; Hartley & Strupp, 1983; Morgan, Luborsky, Crits-Christoph, Curtis, & Solomon, 1982; Saltzman, Luetgert, Roth, Creaser, & Howard, 1976)가 많기 때문에 이 회기의 상담 협력관계 측정치를 자료로 수집하였다.

두 명의 평정자들이 각 상담 사례의 1회기와 3회기가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에 따라 상담자의 행동을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은 상담 심리를 전공하는 박사 과정 학생들로,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에 대해 50시간의 평정 훈련과 토론을 거쳤다. 본 연구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86이었다.

#### 4. 자료처리

상담자 행동 양식을 얻기 위하여 ALSCAL(Alternating Least-squares Scaling; Young, Takane & de Leeuw, 198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다차원 축척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하였다. 중다차원 축척법은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자료들을 차원별로 분류해 주는 분석 절차이다. 하지만 중다차원 축척법은 점들 간의 거리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요인분석은 벡터들 간의 각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벡터들 간의 각보다도 점들 간의 거리를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쉽다는 점에서 중다차원 축척법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요인분석은 비교적 많은 수의 차원을 결과로 내놓는데, 이는 대부분의 절차가 변인들 간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다차원 축척법에는 이러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개는 적은 수의 차원을 결과로 내놓아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해 준다(Davison, Richards, & Rounds, 1986; Fitzgerald & Hubert, 1987; Schiffman, Reynolds, & Young, 1981). 또한 중다차원 축척법은 단순한 군집이나 집단이 아닌 연속체, 즉 차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다. 상담자 행동 양식을 분류하기 위한 자료로는 16사례의 3회기에 대한 평정 결과가 사용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내담자 변인, 즉 적대적이거나 다루기 어려운 내담자가 상담 결과의 예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Curtis, 1979; Moras & Strupp, 1982; Gelso & Carter, 1985; Frieswyk, Allen, Colson, Coyne, Gabbard, Horowitz, & Newsom, 1986; Lansford, 1986; Hill, Helms, Spiegel & Tichenor, 1988; Kiesler & Watkins, 1989; Kok-

otovic & Tracey, 1990), 적절한 상담자 행동 양식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내담자 변인의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심리치료 과정 Q-분류법에서 10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내담자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었다.

상담에서 상담 협력관계의 형성과 관련하여 볼 때 상담자의 행동이 일정한 양식을 보이는지 중다차원 축척법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상담자 행동 양식의 각 차원들이 상담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중다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사례와 계속 저조한 사례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상담자의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 상담 협력관계를 독립 변인으로, 상담자 행동 양식 차원을 종속 변인으로 한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상담자 행동 양식과 상담 협력관계

중다차원 축척법을 적용하여 상담자 행동 양식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차원을 얻었다. 3차원은 .059의 스트레스 값을, 4차원은 .056의 스트레스 값을, 5차원은 .049의 스트레스 값을 보였다. 중다차원 축척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해법들 중에서 차원을 선택할 때에는 각 차원의 스트레스 값과 더불어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Kruskal & Wish,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본 상담자 행동 양식의 이론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4차원의 상담자 행동 양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중다차원 축척법으로 도출된 상담자 행동 양식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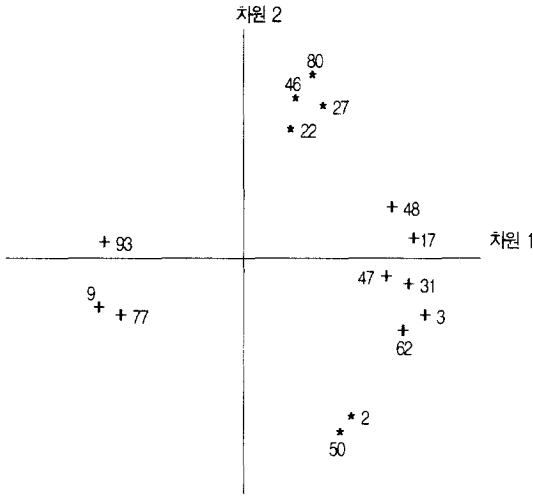


그림 1. 상담자 행동 양식 차원 1과 차원 2의 항목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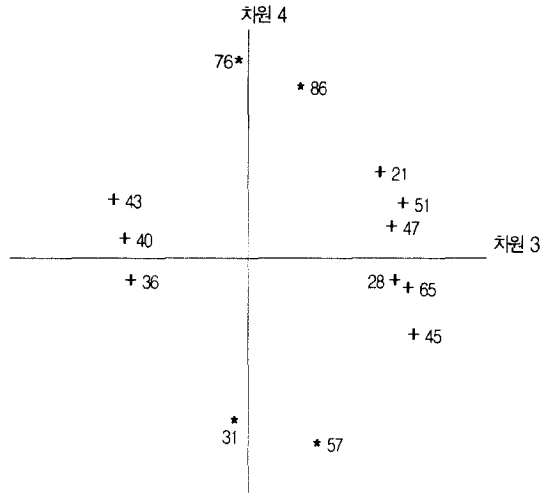


그림 2. 상담자 행동 양식 차원 3과 차원 4의 항목 배치도

차원에 속한 각 항목들의 배치도(sitmulus configuration)이다.

각 차원은 항목들의 연속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극에 속하는 항목에 근거하여 차원의 이름을 붙였다. 각 차원별로 그에 속하는 항목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 표 1, 표 2,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차원표의 수평선 위는 정적으로 상관된 항목들이고 수평선 아래는 부적으로 상관된 항목들이다.

중다차원 축척법을 실시하여 얻은 네 가지 차원의 상담자 행동 양식과 상담 협력관계, 내담자 난이도 간의 상관은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원 3(지지-도전 행동양식)이 상담 협력관계와 부적으로 상관되었는데, 이는 상담자가 도전적일수록 상담 협력관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원 2(재구조화-탐색 행동 양식)는 내담자 난이도와 부적으로 상관되었다. 즉 다루기 어려운 내담자일수록 상담자는 탐색 행동 양식을 더 많이 보였다.

내담자 난이도와 네 가지 차원의 상담자 행동 양식이 종합적으로 상담 협력관계를 얼마나 예측

해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내담자 난이도와 네 가지 차원의 상담자 행동 양식이 종합적으로 상담 협력관계를 예측해 주지만( $F_{(5,10)}=3.35, p<.05$ , 차원 3(지지-도전 행동 양식)만으로도 변량의, 32%를 설명해 주었다. 이는 상담자 행동 양식 중 지지-도전 양식이 상담 협력관계를 가장 많이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담자 난이도와 상담 협력관계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두 번째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내담자 난이도 단독으로는 상담 협력관계를 예측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14)}=1.03$ ).

## 2.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에서 상담자의 행동 양식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사례와 계속 저조한 사례를 구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선택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1회기의 상담 협력관계 점수가 전

표 1. 중다차원 축척법에 의한 상담자 행동 양식의 차원 1

차원 1: 몰두-소원	
항목 17	상담자는 상호작용에 대한 지배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항목 3	상담자가 하는 말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항목 31*	상담자는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좀더 상세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항목 62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이나 행동에서 되풀이되는 테마를 확인해 낸다.
항목 48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행동이나 의견의 독립성을 격려한다.
항목 47*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울 때, 상담자는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항목 77	상담자는 무뚝뚝하고 요령이 없다.
항목 93	상담자는 중립적이다.
항목 9	상담자는 쌀쌀하고 냉담하다.

주: \* 표시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차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된 항목들이다.

표 2. 중다차원 축척법에 의한 상담자 행동 양식의 차원 2

차원 2: 재구조화-탐색	
항목 80	상담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경험이나 사건을 제시한다.
항목 46	상담자는 내담자와 명확하고 조리있게 의사소통한다.
항목 27	상담자는 명백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항목 22	상담자는 내담자의 죄책감에 초점을 맞춘다.
항목 2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항목 50	상담자는 내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표 3. 중다차원 축척법에 의한 상담자 행동 양식의 차원 3

차원 3: 지지-도전	
항목 45	상담자는 지지적인 자세를 취한다.
항목 65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사소통을 명료화하고 재진술한다.
항목 51	상담자는 내담자를 겸손하게 대하거나, 내담자를 보호한다.
항목 28	상담자는 상담 과정을 정확하게 지각한다.
항목 47*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울 때, 상담자는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항목 21	상담자는 자기노출적이다.
항목 36	상담자는 내담자가 방어적 책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항목 40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에 실재하는 사람들에 관해 해석한다.
항목 43	상담자는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의 의미를 설명한다.

표 4. 중다차원 축척법에 의한 상담자 행동 양식의 차원 4

차원 4: 책임성-서술성	
항목 76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한다.
항목 86	상담자는 확신하고 있고 자신있어 한다.
항목 31*	상담자는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좀 더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항목 57	상담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기법이나 내담자 접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다.



체 16사례의 1회기 상담 협력관계 평균 점수 ( $M=175.38, SD=24.71$ )보다 낮게 나타난 사례를 선정하였다( $n=11$ ). 둘째, 3회기의 상담 협력관계 점수가 전체 16사례의 3회기 상담 협력관계 평균 점수( $M=190.88, SD=27.70$ )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는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으로( $n=5$ ), 그리고 3회기의 상담 협력관계 점수가 전체 16사례의 3회기 상담 협력관계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사례는 상담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 $n=6$ )으로 구분하였다. 표 7은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 협력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 행동 양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집단의 1회기와 3회기의 상담 협력관계를 비교하는 일련의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1회기 상담 협력관계 점수를 비교한 검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 $t_{(9)}=-2.37$ ). 이러한 결과는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1회기 상담 협력관계가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1회기 상담 협력관계를 공변량으로 하여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3회기 상담 협력관계와 상담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의 3회기 상담 협력관계를 비교한 공변량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 $F_{(1,7)}=33.37, p<.01$ ). 이는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에서 3회기의 상담 협력관계 강도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H_1$ 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의 종속변인은 심리

표 5. 상담 협력관계, 내담자 난이도, 상담자 행동 양식 간의 상관 ( $n=16$ )

	상담 협력관계	내담자 난이도	차원1	차원2	차원3	차원4
상담 협력관계	--	-.21	.15	.19	-.61*	.17
내담자 난이도		--	-.09	-.59*	.08	-.26
차원1: 몰두-소원			--	.07	-.20	.11
차원2: 재구조화-탐색				--	.10	.15
차원3: 지지-도전					--	-.16
차원4: 책임성-서술성						--

\*  $p<.05$

표 6. 상담 협력관계에 대한 내담자 난이도와 상담자 행동 양식의 중다회귀분석 ( $n=16$ )

변인	B	SE B	$\beta$	$Sr^2$	t
내담자 난이도	11.35	18.17	.19	.02	0.63
차원1: 몰두-소원	1.60	6.87	.06	.01	0.23
차원2: 재구조화-탐색	6.93	8.23	.25	.04	0.84
차원3: 지지-도전	-15.81	6.89	-.57	.32	-2.29*
차원4: 책임성-서술성	4.81	6.94	.17	.03	0.69

주:  $R^2=.39$  ( $p<.05$ )

\*  $p<.05$

치료 과정 Q-분류법에서 도출된 네 가지의 차원이 다.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1회기와 3회기에 대한 네 가지 차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대체로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1회기와 3회기에서 몰두와 책임성 행동 양식을, 상담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1회기와 3회기에서 소원과 서술성 행동 양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상담자의 재구조화-탐색 행동과 지지-도전 행동에 대해서는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이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

여 이원변량분석의 결과에서 집단과 회기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내담자 난이도를 공변량으로 하여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1회기와 3회기에 대해 실시한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변인이 협력관계와 관련되는 상담자 행동 양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원 3(지지-도전)에 대해서 집단과 회기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8)=5.64, p<.05$ ). 상호작용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 협력관계

표 7.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 협력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

	1회기			3회기		
	M	SD	n	M	SD	n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	172.00	2.24	5	213.20	6.83	5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	160.50	11.62	6	163.00	16.64	6

주: 상담 협력관계 점사의 점수 범위는 36~252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1회기와 3회기에 대한 상담자 행동 양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1회기		3회기	
	M	SD	M	SD
차원1: 몰두-소원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	3.14	4.35	1.07	9.60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	-4.34	14.54	-1.39	7.21
차원2: 재구조화-탐색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	-2.17	11.35	0.88	11.58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	1.39	9.43	-4.12	11.91
차원3: 지지-도전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	5.60	6.47	-4.15	3.78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	-3.03	11.77	2.51	6.72
차원4: 책임성-서술성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	3.23	2.94	1.27	7.31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	-4.26	7.37	-6.68	7.17

주: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가 몰두, 재구조화, 지지, 책임성 행동 양식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 각각에서 1회기와 3회기의 차원에 대해, 그리고 한 회기 내에서 각 집단의 차원 점수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1회기에서 지지 행동 양식을 보이다가 3회기에서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_{(8)} = -3.19, p < .01$ ). 또한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3회기에서 도전 행동 양식을 보인 반면, 상담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지지 행동 양식을 보였다( $t_{(8)} = 2.38, p < .05$ ).

차원 4(책임성-서술성)에 대해서는 집단 효과가 발견되었다( $F_{(1,18)} = 7.54, p < .05$ ). 마찬가지로 각 집단에서 1회기와 3회기의 차원 점수에 대해, 그리고 한 회기 내에서 각 집단의 차원 점수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여, 1회기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_{(9)} = -2.52, p < .05$ ). 즉, 1회기에서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책임성 행동을, 상담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서술성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9. 상담자 행동 양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i>df</i>	<i>SS</i>	<i>MS</i>	<i>F</i>
차원1: 몰두-소원				
집단	1	11.41	11.41	1.17
회기	1	0.01	0.01	0.01
집단×회기	1	4.63	4.63	0.47
오차	7	176.21	9.79	
전체	10	192.30		
차원2: 재구조화-탐색				
집단	1	0.28	0.28	0.02
회기	1	0.82	0.82	0.07
집단×회기	1	10.01	10.01	0.82
오차	7	220.54	12.52	
전체	10	232.27		
차원3: 지지-도전				
집단	1	0.53	0.53	0.09
회기	1	2.43	2.43	0.43
집단×회기	1	31.84	31.84	5.64*
오차	7	101.57	5.64	
전체	10	138.27		
차원4: 책임성-서술성				
집단	1	32.51	32.51	7.54*
회기	1	2.62	2.62	0.61
집단×회기	1	0.03	0.03	0.01
오차	7	77.66	4.31	
전체	10	112.90		

주: '집단'은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을 나타내며, '회기'는 1회기와 3회기를 의미한다.

\*  $p < .05$

## 논 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부분은 상담 협력관계의 형성이나 개선과 관련하여 상담자들이 궁극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보편적인 행동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의해 실시된 본 연구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담자 행동 양식을 얻기 위해 실시한 중다차원 측정법을 통해 몰두-소원, 재구조화-탐색, 지지-도전, 책임성-서술성의 네 가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문헌 고찰에서는 상담자 행동 양식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행동 양식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인관계 행동 양식이란 상담 관계 내에서 발생한 역동이 내담자의 또 다른 관계, 즉 상담 관계 이외의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해 상담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상담자 행동을 평정하기 위해 자료로 사용한 상담 회기가 3회기였기 때문에, 상담실 바깥에서 내담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하는지에 대해 상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면담이 진행되지 못하여 상담자의 대인관계 행동 양식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자 행동 양식의 각 차원들 중 지지-도전 차원은 상담 협력관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지지적인 의도와 상담 협력관계 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발견한 Kivlighan(1990), 박연수(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상담 협력관계의 본질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상담을 진행시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담자가 보이는 지지적인 행동 양식은 내담자를 수동적인 역할로 고정시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협력관계를 방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지지-도전 행동 양식과 내담자 난이도는 별다른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지적인 개입에 대해 더 나은 상담 결과를 보이고, 동기가 높은 내담자는 상담자의 도전적인 개입에 대해 더 나은 상담 결과를 보인다고 제안한 Horowitz 등(1984)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상담자들이 비교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좀더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좀더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상담자 행동 양식의 재구조화-탐색 차원은 내담자 난이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다루기 어려운 내담자일수록 상담자가 상담 회기를 구조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상담자의 경험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Mallinckrodt와 Nelson(1991)은 상담자의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상담 협력관계의 목표 및 과제에 대해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합의하는데 비해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와 유대를 맺는 데는 쉽게 성공하지만 목표나 과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살펴본다면 상담 협력관계 형성과 관련된 상담자 행동 양식에 대해 좀더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 행동 양식과 내담자 난이도가 상담 협력관계를 예측해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변인들은 변량의 39%를 설명해 주었다. 내담자 난이도 단독으로는 상담 협력관계를 예측해 주지 못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내담자 변인이 상담자 변인 못지않게 상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

고 있어서(Frieswyk et al., 1986; Kiesler & Watkins, 1989; Kokotovic & Tracey, 1990; Moras & Strupp, 1982), 내담자 난이도 척도를 구성하여 내담자 변인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원한 사람들로, 일반적인 내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문제, 혹은 내적인 경험, 느낌, 사고 등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는 정도가 달랐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변인이 상담 협력관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가지 차원의 상담자 행동 양식 중에서도 지지-도전 차원이 변량의 상당 부분인 31%를 설명해 주고 있어 이 차원이 상담 협력관계를 예측하는 주된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Basch(1980), Fenichel(1941), Greenson(1967), Langs (1974), Malan(1981) 등의 이론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사실, 즉 상담 협력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방어를 확인하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상담자 행동 양식이 상담 협력관계의 개선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으로 조건을 나누어 상담자의 행동을 비교해 보았다.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1회기와 3회기의 상담자 행동 양식 각 차원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각 집단의 상담자 행동 양식 변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과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1회기와 3회기에 걸쳐 상반된 행동 양식을 보였다.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1회기와 3회기 모두에서 몰두 행동과 책임성 행동을 많이 보이며, 1회기에서는 탐색 행동과 지지 행동을 많이 하다가 3회기에서는 오히려 재구

조화 행동과 도전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상담 협력관계가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이와 상반된 행동 양식을 보였다. 즉 1회기와 3회기 모두에서 소원 행동과 서술성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1회기에서는 재구조화 행동과 도전 행동을 많이 하다가 3회기에서는 그 반대로 탐색 행동과 지지 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처럼 집단별로 서로 상반되는 상담자 행동의 추세는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Foreman과 Marmar(1985)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용하는 방어, 내담자의 자기차별 욕구 등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집단의 상담자는 이러한 것들을 다루지 않거나 회피하였다. 또한 Reandeanu와 Wampold(1991)는 협력관계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에서 상담자의 언어적 반응이 힘과 몰두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Safran, Muran과 Sam-stag(1994)도 협력관계의 결렬이 해결된 집단의 상담자는 결렬 상태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협력관계의 결렬이 해결되지 않은 집단의 상담자는 결렬 그 자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상담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에 비해 3회기에서 도전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1회기에서 지지하는 행동을 많이 하다가 3회기에서 도전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도전적인 행동 양식의 차원 점수와 상담 협력관계 점수가 나란히 증가한 것은 저조하던 상담 협력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지-도전 차원이 특히 중요한 상담자 행동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가들은 저조한 협력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가 협력관계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

이고 내담자를 방어에 직면시키는 것임을 강조해 왔다(Basch, 1980; Greenson, 1967; Menninger, 1958).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가들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지적인 의도와 상담 협력관계 간의 유의미한 부적 관계는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Kivlighan(1990), 박연수(1993)의 연구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이는 지지 행동을 많이 하여 저조한 협력관계를 유효화하려는 상담자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상담 협력관계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바가 별로 없음을 시사한다.

도전 행동 이외에도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 집단의 상담자는 1회기에서 책임성 행동을 많이 보이고, 상담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서술성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선된 협력관계 집단에서 상담자는 자신과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내담자의 느낌을 다루며, 협력관계가 계속 저조한 집단의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나타내는 분명한 부정적 반응을 피한다고 보고한 Foreman과 Marmar(1985)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갈등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내담자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상담 협력관계가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담 협력관계의 형성과 개선에 관련된 상담자 행동 양식에 대한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담자들은 석사학위 소지자들로 비교적 상담 경험이 적은 편이었다. 경험이 많은 상담자는 상담자 반응과 개입의 선택에 있어서 좀더 다양성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좀더 경험많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후 연구 설계를 택하였기 때문에, 상담자의 행동 양식과 협력관계 강도

의 변화 간에서 인과적 관계를 밝힐 수가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회기 단위로 상담자 행동 양식을 평정한 것과 내담자가 평정한 상담 협력관계를 상관시키는 것이 이러한 변인들 간의 순간순간의 연관성을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담의 즉각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담 협력관계와 상담자 행동 양식에 관해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처럼 회기 차원에서 상담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박연수(1993). 작업동맹 형성과 상담자 언어행동 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Barrett-Lennard, G. T. (1985). The helping relationship: Crisis and advance in theory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278-294.
- Basch, M. F. (1980). *Doing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260.
- Curtis, H. C. (1979). The concept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mplications for the "widening of scop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7, 159-192.
- Davison, M. L., Richards, S. P., & Rounds, J. B. (1986). Multidimensional scaling in counseling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4, 178-184.
- Elliott, R., Hill C. E., Stiles, W. B., Friedlander, M. L., Mahrer, A. R., & Margison, F. R.

- (1987). Primary therapist response modes: Comparison of six rating syst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218-223.
- Fenichel, O. (1941). Problems of psychoanalytic technique. *Psychological Quarterly, 13*, 38-64.
- Fitzgerald, L. F., & Hubert, L. J. (1987). Multi-dimensional scaling: Some possibilities for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69-480.
- Foreman, S. A., & Marmar, C. R. (1985). The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poor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922-926.
- Freud, S. (1949).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Frieswyk, S. H., Allen, J. G., Colson, D. B., Coyne, L., Gabbard, G. O., Horowitz, L., & Newsom, G. (1986). Therapeutic alliance: Its place as a process and outcome variable in dynamic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32-38.
- Gelso, C. J., & Carter, J. A.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mponents, consequences, and theoretical antece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155-243.
- Gelso, C. J., Hill, C. E., & Kivlighan, D. M. (1991). Transference, insight, and counseling intentions during a counseling hou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428-433.
- Greenson, R. R. (1967).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Hartley, D. E., & Strupp, H. H. (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In M. Masling (Ed.),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 theories* (pp. 1-27). Hillsdale, New Jersey: Analytic Press.
- Highlen, P. S., Hill, C. E. (1984). Factors affecting client change in individual counseling: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speculation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334-396). New York: John Wiley.
- Hill, C. E., & O'Grady, K. E. (1985). List of therapist intentions illustrated with a case study and with therapist of varying theoretical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2.
- Hill, C. E., Helms, J. E., Spiegel, S. B., & Tichenor, V. (1988).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ategorizing client reactions to therapist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7-36.
- Hill, C. E., Helms, J. E., Tichenor, V., Spiegel, S. B., O'Grady, K. E., & Perry, E. S. (1988). Effects of therapist response modes in brie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22-233.
- Horvath, A. O., & Greenbergs,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Horowitz, M. J., Marmar, C., Weiss, D. S., DeWitt, K. N., & Rosenbaum, R. (1984). Brief psychotherapy of bereavement reactions: The relationship of process to outcom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438-448.
- Jones, E. E. (1985). *Manual for the psychotherapy process Q-sor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Jones, E. E., Cumming, J. D., & Horowitz, M. J. (1988). Another look at the nonspecific

- hypothesis of therapeutic effect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8-55.
- Kiesler, D. J., & Watkins, L. M. (1989). Interpersonal complementarity and the therapeutic alliance: A study in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26, 183-194.
- Kivlighan, D. M., Jr. (1990).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use of intentions and clients perception of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7-32.
- Kokotovic, A. M., & Tracey, T. J. (1990).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phas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6-21.
- Kruskal, J. B., & Wish, M.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 Langs, R. (1974). *The techniques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Northvale, New Jersey: Jason Aronson.
- Lansford, E. (1986). Weakenings and repairs of the working alliance in short-term psychotherap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7, 364-366.
- Malan, D. (1981).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the science of psychodynamics*. London: Butterworths.
- Mallinckrodt, B. (1991). Clients'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form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01-409.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Psychotherapy*, 38, 133-138.
- Menninger, K. (1958). *The theory of psychoanalytic technique*. New York: Basic Books.
- Moras, K., & Strupp, H. H. (1982). Pre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 patient's alliance, and outcome of brief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405-409.
- Morgan, R., Luborsky, L., Crits-Christoph, P., Curtis, H., & Solomon, J. (1982). Predicting the outcomes of psychotherapy by the Penn Helping Alliance Rating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397-402.
- Parloff, M. B., Waskow, I. E., & Wolfe, B. E. (1986). Research on therapist variable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S. L. Garfield & A. E. Bergin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3rd ed., pp. 233-282). New York: John Wiley.
- Reandeu, S. G., & Wampold, B. E. (1991). Relationship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07-114.
- Safran, J. D., Muran, J. C., & Samstag, L. W. (1994). Resolving therapeutic alliance ruptures: A task analytic investigation. In A. O. Horvath & L. S. Greenberg (Eds.),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99-224). New York: John Wiley.
- Saltzman, C., Luetgert, M. J., Roth, C. H., Creaser, J., & Howard, L. (1976). Formation of a therapeutic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the initial phase of psychotherapy as predictors of treatment duration and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546-555.
- Saul, L. J. (1972). *Psychodynamically based psychotherapy*. New York: Science House.
- Saul, L. J. (1977).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The key to personality, its disorders and therap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Schiffman, S. S., Reynolds, M. L., & Young, F. W. (1981). *Introduction to multidimensional scaling: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Orlando: Academic Press.
- Tobin, S. (1990).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of the Psychotherapy Process Q-sor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Tracey, T. J., & Kokotovic, A. M. (1989). Factor structure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1*, 207-210.
- Windholz, M. J., & Silberschartz, G. (1988).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lication with adult out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56-60.
- Young, F. W., Takane, Y., & de Leeuw, J. (1984). *Multidimensional scaling: Theory and methods*.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Effects of Counselor Behavior Modes on Working Alliance

**Yeun-Soo Park      Hyun-Rim Lee**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spected whether modes exist in counselor behaviors, and if so, how well these modes predict working alliance, and also identified differences in counselor behavior modes between improving alliance cases and continuing poor alliance cases.

To collect the data for examining these purposes, 16 clients were selected who agreed on participating in this study. Six counselors who have a master's degree in counseling psychology interviewed these clients four sessions at least. Each counseling session was videotaped. After the first and the third sessions, the clients filled out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Client Form). Two raters reviewed the first and the third sessions and sorted the sessions using the Psychotherapy Process Q-sort.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our dimensions of counselor behaviors that underlie the Psychotherapy Process Q-sort ratings was identified through multidimensional scaling. These dimensions are involvement-distance, restructure-explore, support-challenge, and responsibility-descriptivity. Second, support-challenge mode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working alliance, and restructure-explore modes were correlated negatively with client difficulty. Third, the four counselor behavior modes and client difficulty significantly predicted working alliance. Specifically, support-challenge dimension accounted for the greatest amount of variance. Fourth, the client difficulty scale, created from 10 items in the Psychotherapy Process Q-sort, didn't predict working alliance. Fifth, to identify which counselor behavior modes could contribute to improve working alliance, the researcher looked into the differences in counselor behavior

modes between improving alliance cases and continuing-poor alliance cases.

The counselors in improving alliance cases tended to support in the first session and changed to be more challenging in the third one. In the first session, the counselors in improving alliance cases tended to show more responsibility behavior modes than did the counselors in continuing-poor alliance cases.